



## 셀럽들의 스위스 먹방 스팟.

오, 스위스에서 먹으니 꿀맛일세

기차에서도, 캠핑장에서도, 산 정상에서도 맛, 맛, 맛!

창밖으로는 5성급 파노라마 펼쳐져

공기가 좋아서 그런가? 왜 이렇게 맛있죠?

달콤달콤하구나

이건... 어떻게 먹는거죠?

스위스정부관광청과 함께 스위스를 여행한 셀럽들은 얼마나 특별한 음식을 맛 보았을까? 스위스로 초대받은 셀럽들에게 스위스 사람들이 선사한 맛은 어떤 것일까? 해외 여행이 잦은 그들조차도 깜짝 놀랄만한 스위스의 맛은 무엇이었을까? 셀럽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고, 행복하게 만들었던 그들의 스위스 먹방 스팟을 공개한다.

### 1. 오, 기차에서 먹으니 더 맛있어!

#### 노홍철의 루체른-인터라켄 익스프레스(Luzern-Interlaken Express) 식당칸

루체른과 인터라켄을 잇는 새빨간 파노라마 기차 안에서 노홍철은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낭만적인 호수와 초록 들판, 알프스 봉우리를 감상하며 식당칸에서 여유로운 점심 식사를 즐겼다. 그가 맛본 메뉴는 올리브와 말린 토마토, 치즈, 그라우빈덴 건조 햄이 곁들여진 안티파스티 플래터와 샐러드, 화이트 와인이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5성급 파노라마에 좋은 와인과 마리아쥬 좋은 안주는 참 행복한 런치였다.

### 2. 스파하고 먹으니 꿀맛!

#### 노홍철이 찾은 로이커바트(Leukerbad)의 산장 레스토랑 빌트슈트루벨(Wildstrubel)

스위스 남부, 로이커바트에서 노천 온천을 즐긴 노홍철은 마을에서 이어지는 케이블카를 타고 겐미(Gemmi) 산에 올라 산장 호텔 빌트슈트루벨에 딸린 레스토랑을 찾았다. 알프스 봉우리가 펼쳐진 테라스에서 풍경을 감상하며 스위스의 전통 음식인 뢰슈티(Rösti)와 풍뎉(Fondue)를 맛보았다. 빵을 찍어 먹는 풍뎉도 맛있지만, 스위스 알감자를 찍어먹는 풍뎉는 꿀맛이었다는 후문이다. 물론, 풍뎉 요리와 함께 와인도 한 잔 빠질 수 없었다.

### 3. 007 도장, 어떻게 찍은거예요?!?!

#### 노홍철의 끝없는 호기심, 쉴트호른(Schilthorn)의 회전 레스토랑, 피츠 글로리아(Piz Gloria)

쉴트호른 정상에 있는 360도 회전 레스토랑을 찾은 노홍철은 007의 로케이션이었던 산을 찾은만큼 당연히 007 버거를 맛보아야 한다 했다. 버거를 받은 노홍철의 눈은 휘둥그레졌다. 버거 번에 찍힌 007 글씨 때문이었다. 셰프까지 찾아가 그 비밀을 캐묻는 집요함을 보인 노홍철은 스위스 소고기와 감자튀김의 맛에 흠뻑 빠졌다.

### 4. 공기가 좋아서 그런가? 치즈가 쪽쪽 늘어나요!

#### 이특이 찾은 3100 쿨름호텔(Kulm Hotel) 레스토랑

체르마트(Zermatt)에 있는 고르너그라트(Gornergrat) 산 정상에 자리한 3100 쿨름호텔에는 미식 레스토랑이 있다. 레스토랑의 테라스에서 4000미터급 알프스 봉우리들에 에워싸여 풍뎉를 맛본 이특은 쪽쪽 늘어나는 치즈에 놀라워 했다. 물론 그 맛도 놀라울 정도였다.



**5. 달콤달콤하군요.**

**이특이 찾은 취리히(Zürich)의 카페, 쇼베르(Schober)**

취리히의 구시가지에는 현지인들에게 ‘달콤한 코너(sweet corner)’라고 불리우는 전통 초콜릿/디저트 카페인 콘디토라이 쇼베르가 있다. 이 스타일리쉬한 카페를 찾은 이특은 골목에 놓인 작은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달콤이 디저트를 골고루 맛보았다. 사르르 녹는 초콜릿 케익과 각종 베리류가 올라간 타르트들은 이특에게 달콤 행복한 시간을 선사했다.

**6. 어떻게 먹는 거예요?**

**이특이 도전한 취리히의 프셔스 프리츠(Fischers Fritz)**

취리히 호반에 자리한 캠핑장에 마련되어 있는 특별한 레스토랑을 찾은 이특은 아티초크와 생선 튀김, 치킨 wings 맛 보았다. 처음 마주하는 아티초크의 생김새에 당황하긴 했지만, 친절한 웨이터의 설명으로 처음보는 채소 요리를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체험이었다.

자료제공: 스위스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http://www.MySwitzerland.co.kr)